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h1>보도자료</h1>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4월 18일(목) 총 13매		
담당 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 물류정책팀장 이양숙 ☎440-3871 • 담당자 천주현 ☎440-387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발표

- 인천 지하철 1,2호선 57개 역사 활용 친환경 공동물류망 구축, 소상공인 물류 경쟁력 강화
- 모든 소상공인 대상,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50% 절감된 반값 택배서비스 연간 120건 한도 지원, 25% 절감된 업체방문 픽업 서비스 무제한 제공

인천광역시시는 1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 교통공사와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의 혜택과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우선 1단계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에 소상공인 택배 집화센터를 설치해 집화센터에 직접 접수한 모든 소상공인 물량을 대상으로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50% 절감된 반값 택배 서비스를 연간 120건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25%가 절감되는 소상공인 업체 직접방문을 통한 물품픽업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25년 7월부터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모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절감과 빠른 배송을 통한 소상공인 물류경쟁력 강화에 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류구조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 패턴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은 작년 기준 227조 원 규모로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대기업의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확대와 해외 직구 플랫폼의 공세로 인해 매출 물량이 적은 소상공인들은 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려웠다.

특히, 인천시 소상공인의 72%는 월평균 택배발송 물량이 10건 내외로, 소규모 물량으로는 기존 택배사들과 계약이 어렵고 계약시에도 높은 단가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기존 대형 택배사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당일배송 상품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당일배송도 이용하기 어려웠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소상공인들의 산재된 소량의 택배를 모아서 기존 택배사와 일괄로 계약해 택배 단가를 낮추고, 단 한 개 물량에 대해서도 픽업과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올해 2월, 인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택배 가격은 시장 일반

배송 평균 보다 약 25%가 저렴해졌고, 배송 시간은 50% 이상 단축됐다. 또한 참여한 560개 업체 중 23%가 온라인 쇼핑 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는 등 택배비 절감과 온라인 판매 확대에 의해 업체당 연매출이 10.7%나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전기 화물차로 픽업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경우 매년 200억 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행 집화 방식과 병행하면서, 인천 지하철 57개 역사와 지하철을 활용하는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하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용할 수 있고, 시스템 운영이 안정화되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300만 인천시민 역시 25%가 할인된 가격으로 택배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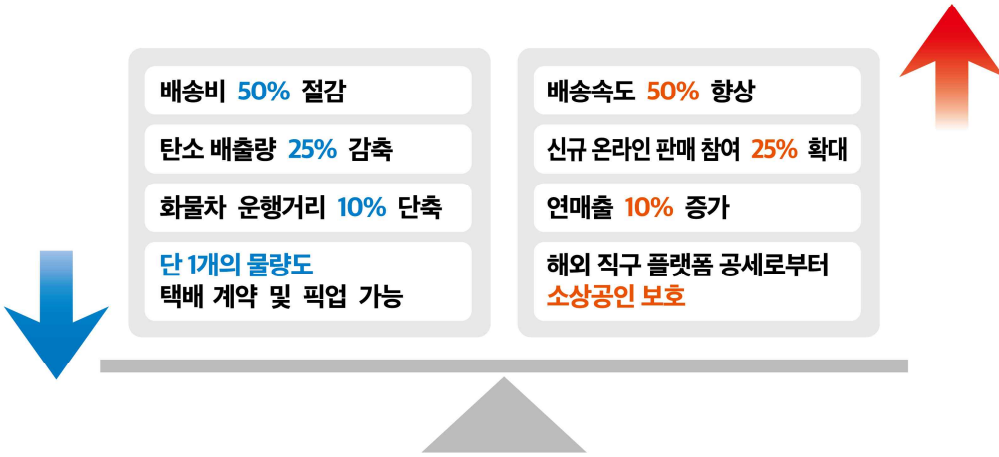
또한, 인천시는 지하철과 전기 화물차를 활용한 친환경 집화 시스템이 모두 구축되면, 기존 체계 대비 25% 이상 탄소 배출량이 저감되므로 기후위기 대응에도 일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을수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지하철을 연계한 친환경 공동물류망을 활용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민 가계 재정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동시에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 변화 위기에도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이라 확신한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관계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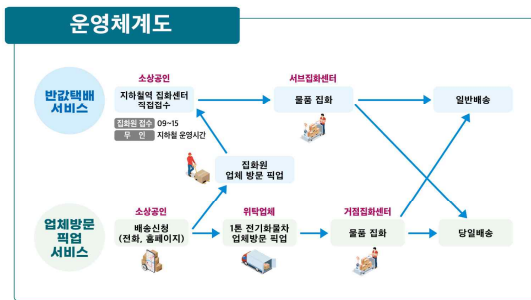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20분)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 ‘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기대효과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운영체계



단계별 시행계획

구분	기간	운영시스템
기존운영	'24.2. ~ '24.9.	· 거점 집화센터(1개소), 운영인력 16명 · 전기화물차 11대
확대운영 (1단계)	'24.10. ~ '25.6.	· 거점 집화센터(1개소), 지하철역 서브 집화센터(5개소), 지하철역 집화센터(30개소) · 운영인력 200명, 전기화물차 30대(신규구입 19대)
확대운영 (2단계)	'25.7. ~	· 거점 집화센터(1개소), 지하철역 서브 집화센터(9개소), 지하철역 집화센터(57개소) · 운영인력 347명, 전기화물차 30대



참고2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 택배사 및 편의점 가격 비교

-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 택배시장 평균가격 비교
 - 반값 택배서비스: 소상공인 2,000원/건 절감, 市 1,000원/건 지원
 - 업체방문 픽업서비스(소상공인 1,000원/건 절감)

구 분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시 장 평 균						
	반값택배 서비스	업체방문 픽업서비스	평균 가격	우체국	편의점	A사	B사	C사	D사
일반 배송	1,500원 (57% 절감)	2,500원 (29% 절감)	3,500원	5,000원	3,800원	3,630원	3,300원	3,300원	-
당일 배송	2,500원 (43% 절감)	3,500원 (20% 절감)	4,400원	접수불가					4,400원

※ 택배규격 5kg, 100cm 이하 기준

-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 편의점 택배가격 비교

구 분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A사		B사	
	반값택배 서비스	업체방문 픽업서비스	편의점 ↔ 편의점	편의점 일반	편의점 ↔ 편의점	편의점 일반
일반배송	1,500원 (42% 절감)	2,500원 (34% 절감)	2,600원	3,850원	2,600원	3,750원
당일배송	2,500원	3,500원	접수불가			

※ 택배규격 5kg, 100cm 이하 기준

I. 추진배경

1.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급변하는 유통·물류시장의 변화
 - 대기업의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진출 확대로 유통 물량이 적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 소상공인 택배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소상공인의 온라인 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중이나 배송 서비스 체계의 한계 존재
 - 소상공인의 72%가 월 평균 택배발송 물량이 10개 내외이나, 소규모 물량으로는 기존 택배사들과 계약이 어려우며, 계약시에도 높은 단가 부담
 - 기존 대형 택배사들은 소상공인 당일배송 상품이 없어 당일배송 불가
- 해외 직구 플랫폼의 저가 및 빠른 배송의 공세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증가

2. 문제해결 방안

- 소상공인의 물류 환경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인천 지하철 1, 2호선 역사를 활용하여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운영(전국 최초)
- 소상공인의 산재된 소량의 택배를 모아 일괄 계약으로 단가 절감, 1개의 물량도 픽업, 배송시간 단축 및 당일배송 가능

II. 추진경과

1. (2022년) V2V 기반 공유물류망을 통한 당일배송 서비스 실증

- 사업비 : 12억원 ([국토부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 6억](#), 시비 6억) / ◦ 사업기간 : '22.4~'22.12
- 실증내용 : 배송시간, 비용을 증가시키는 창고를 배송 모든 과정에서 배제, 물류창고 없이 차량간 유기적인 운행 및 화물 전달을 통해 배송(1톤 전기 화물차 구입 7대)
- 실증결과 : 배송시간 81%(24→4.6시간) 단축, 탄소 배출량 49% 감소
⇒ '22년도 실증의 성과를 '23년도 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 구축 사업으로 연계

2. (2023년)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통한 공유물류 서비스 실증

- 사업비 : 10억원 ([국토부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 5억](#), 시비 5억) / ◦ 사업기간 : '23.7~'24.1
- 실증내용 : 인천 관내 소상공인 대상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순회 집화 및 공동배송을 통해 물류 서비스 경쟁력 확보(1톤 전기화물차 구입 4대)
- 실증결과 : 배송료 절감 및 배송속도 향상(인천·서울·부천 당일배송, 전국 익일배송)

구분	시장평균가격(A)	공동물류센터(B)	절감(A-B)	혜택
일반배송	3,500원	2,500원	1,000원/건	시장평균 가격 대비 25% 절감
당일배송	4,400원	3,500원	900원/건	

- ※ 참여업체 설문조사('24.2.) 결과 [매출증가 10.7%](#), 신규 택배 이용률 증가 23%
- ※ 기존 택배 체계 대비 CO2 25% 이상 저감, 배송속도 55% 향상(66시간 → 30시간)
⇒ '23년도 실증의 성과를 '24년도 인천 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 운영 사업으로 연계

3. (2024년)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운영([市 자체사업 전환 '24.2. ~.](#))

- 사업비 : 7억원(전액 시비)
- 지원대상 : 1,000개 업체 ※ '24년 4월 18일 현재 약 1,200개 업체 신청
- 사업내용 : 소상공인 택배 물품을 공동물류센터로 일괄 픽업하여 소비자에게 배송
- 市소유 픽업차량(1톤 전기화물차11대)을 활용하여 패션(의류,신발,가방,액세서리 등), 생활(가구,인테리어,생활용품,애완용품 등), 식품(음식료품,농축수산물 등) 등 집화·배송

III. 시행계획

1. 시행방법

- 인천지하철 역사(1,2호선) 내 집화센터(57개소) 설치, 관내 소상공인 약 37만개 업체(강화·옹진 제외*)의 택배 물품을 일괄 집화하여 소비자에게 배송 지원

* 옹진(21개소)·강화(6개소) 주민 택배비 지원(18억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추가 배송비 지원
강화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6억원) : 농산물 직거래에 따른 택배비 최대 3천원/건, 연간 150건 지원

- 지하철역 집화센터 직접 접수시 2,000원/건 절감(업체당 연간 120건 한도)

- ☞ ① 택배계약(위탁업체에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
- ② 택배접수(소상공인이 택배물품을 지하철역 집화센터에 직접 접수) →
- ③ 물품집화(9개소 서브집화센터) → ④ 배송(택배사, 일반/당일) →
- ⑤ 고객(물품수령)

- 업체방문 픽업 접수시 1,000원/건 절감(업체당 연간 한도 없음)

- ☞ ① 택배계약(위탁업체에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
- ② 배송신청(소상공인이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픽업신청) →
- ③ 물품집화(1톤 전기화물차 또는 지하철역 집화센터 집화원이 업체 방문 픽업) →
- ④ 배송(택배사, 일반/당일) → ⑤ 고객(물품수령)

※ 일반 배송(평균 2일 소요), 당일 배송(당일 24시까지 배송)

2. 운영시스템

- 집화센터 설치
 - 거점 집화센터 1개소(부평 테크노밸리 U1 센터 내)
 - 서브 집화센터(9개소), - 지하철역 집화센터(57개역)
- 픽업차량: 1톤 전기화물차 30대(기 운영 11대 포함)

○ 운영인력: 347명

- 관리자 및 픽업기사 43명(거점 및 서브 집화센터 관리자 13명, 픽업기사 30명)
- 접수 및 집화인력 304명(집화센터 접수원 118명, 집화원 186명)

3. 세부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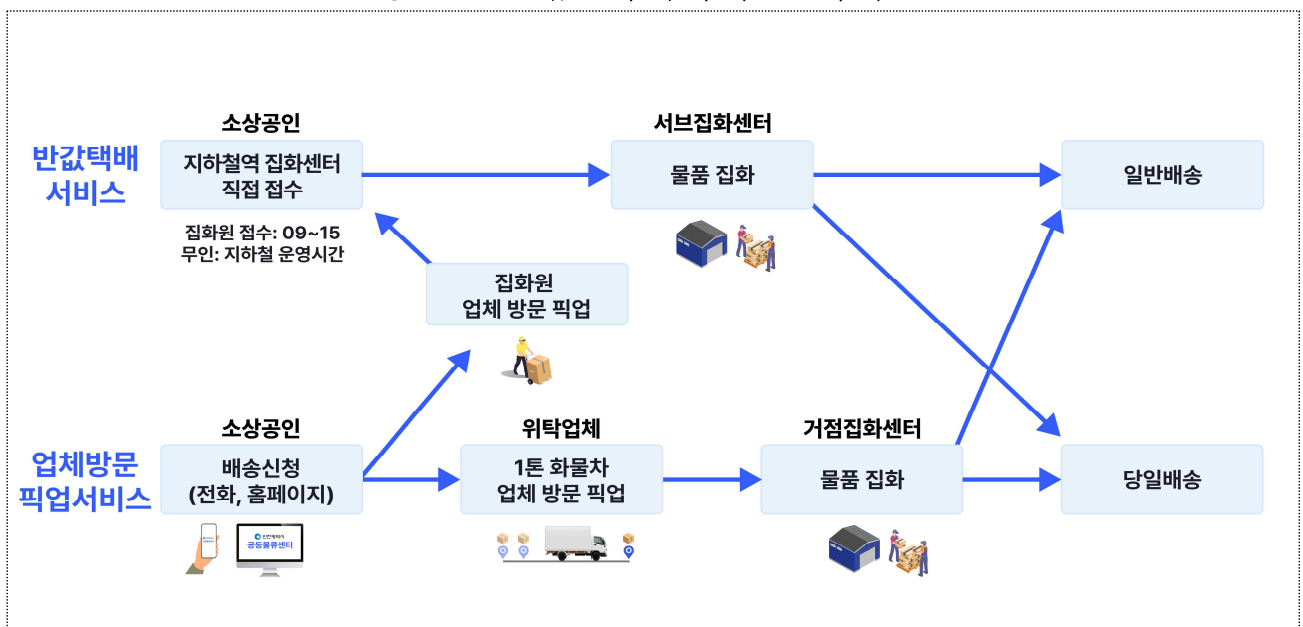
○ 단계별 운영

구분	기간	운영시스템
기존	'23.7.~'24.6.	거점 집화센터(1개소), 운영인력 16명, 전기화물차 11대 ※ 1단계 확대(30개역)를 위한 시설 구축 및 테스트 '24.7. ~ '24.9.
1단계	'24.10.~'25.6.	거점 집화센터(1개소), 서브 집화센터(5개소), 지하철역 집화센터(30개역), 운영인력 200명, 전기화물차 30대
2단계	'25.7.~	거점 집화센터(1개소), 서브 집화센터(9개소), 지하철역 집화센터(57개역), 운영인력 347명, 전기화물차 30대

○ 세부 운영방법

- 반값 택배서비스(소상공인 2,000원/건 절감, 市 1,000원/건 지원)
- 업체방문 픽업서비스(소상공인 1,000원/건 절감)

<소상공인 반값 택배서비스 체계도 >



IV. 기대효과(‘24.2.29. 인천연구원 ‘23년도 사업분석 결과)

1.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으로 매출증대(1.6억원*×10.7% = 17백만원)
 - 통신판매 확대 및 택배비 절감으로 업체당 연매출 10.7% 증가**
2. 배송료 절감*(인천·서울·부천 당일배송, 전국 일반배송)

구 분	시장 평균가격	인천소상공인반값택배		시장 평균가격 (5kg,100cm 이하) 대비
		반값 택배서비스	업체방문 픽업서비스	
일반배송	3,500원	1,500원	2,500원	반값 택배서비스 50% 절감
당일배송	4,400원	2,500원	3,500원	업체방문 픽업서비스 25% 절감

* 참고 2 :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 택배사 및 편의점 가격비교

3. 소상공인 누구나 참여 가능, 단 1개의 물량도 방문 픽업 서비스, 당일배송 가능
 4. 통신판매 미 이용자, 통신판매 이용자로 전환 23%.
 5. 기존 택배사 일반배송 평균 배송시간은 66시간, 인천 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는 30시간 소요되어 36시간 절감*
 6. 지하철을 활용한 집화시스템과 친환경 전기화물차 활용으로 기존 택배체계 대비 이동거리 13% 단축, 연간 CO2 배출량 25% 저감*
 7. 해외 직구 플랫폼의 저가 및 빠른 배송의 공세로부터 관내 소상공인 보호
 8. 집화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27년 이후 반값 지원금 등 최소 경비만 소요되며, 제도 정착 후 300만 인천시민(택배비 25% 절감) 활용 가능
- * 기 구축된 집화시스템을 활용하므로 300만 인천시민 활용시, 추가 예산 불요

1. 해외직구 플랫폼으로부터 어떻게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가?

- 최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와 테무가 국내 유통 시장을 뒤흔들고 있음. '24. 2월 기준 해당 플랫폼 이용자 수는 천 3백만명이 넘었음.
- 중국산 물품 직구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초저가와 빠른 배송을 내세운 전략 때문임.
- 특히, 알리 익스프레스는 올해안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는 등 3년 동안 1조 4천억원을 한국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소상공인 반값 택배는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배송 속도도 크게 향상 시킴으로써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음.

2. 강화, 옹진이 제외된 이유는?

-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는 지하철과 지하철 역사를 활용하는 모델인데 강화·옹진에는 지하철이 없음.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강화·옹진 주민에 대하여는 별도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함.

* 옹진(21개섬)·강화(6개섬) 주민 택배비 지원(18억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추가 배송비 지원
 강화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6억원) : 농산물 직거래에 따른 택배비 최대 3천원/건, 연간 150건 지원

- 향후 강화·옹진에서 나오는 물품을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운영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음.

3. 탄소 감축은 어떻게 가능한지?

- 공동물류 사업을 통해 산재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의 물량을 모으면 물량 1건당 픽업 차량의 운송거리가 줄어듦.
- 기존의 택배 물류 네트워크의 경우 고객 - Sub터미널 - Hub 터미널(물류창고) - Sub터미널 - 주문자의 구조로 되어있으나, '22년 실증의 성과를 활용해 Hub-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집화하여 이동거리가 13% 감소됨.
- 이동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탄소 배출량은 기존 택배체계 대비 약 25%가 줄어듦. 아울러 '24년도 지하철을 활용한 집화시, 추가 5% 이상(총 30% 이상)의 탄소 저감 효과가 예상됨.

4.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이유?

- 당초, '24년 하반기, 지하철역 3~4개소를 활용하여 테스트 한 후, '25년도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이었음.
- '24년 2월, 작년 사업에 대한 인천연구원 분석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배송속도 향상, 탄소 저감 등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고, 해외직구 플랫폼 공세 강화로부터 소상공인의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 1회 추경 편성하여 추진함.

5. 시민 이용은?

- '27년 이후, 운영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이용이 가능하고, 지하철역 직입고시 25% 절감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는 지하철을 활용하므로 택배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탄소저감 효과가 커지고, 시민과 인천시 모두에게 이익이 됨.
- 더구나, 이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없는 만큼, 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서 '27년 이전이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